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2월 미 내구재 주문, 전월과 비교해 1.4% 하락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견조한 경제지표로 국채 하락세

[뉴욕시]

- WSJ: 만다니 뉴욕시장, 부유층 세금 대신에 재산세 증액 제안

[물류]

- WSJ: 백악관, 해운 산업 발전 위해 수수료와 인센티브 제의

[무역전쟁]

- YahooFinance: 일본 “대미 투자 첫 단계로 3백60억불 에너지, 핵심광물 투자”

[주택]

- Bloomberg: 12월 미 신규 주택 착공, 5개월만에 최고치
- CNBC: 모기지율 6.17%, 한 달 만에 가장 낮아...재융자 수요 증가

[에너지]

- CNBC: 오일 3% 상승 중... 부통령 밴스 “이란, 미 마지노선 무시”
- Bloomberg: 대형 배터리 비용 낮아져 청정 에너지 성장 지원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Walmart와 Target, 새로운 CEO들 경영 전략 다르다

[미국 경제]

WSJ: Durable-Goods Orders Slipped in December

12월 미 내구재 주문, 전월과 비교해 1.4% 하락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내구재 수요가 전월에 비해 1.4% 하락했다.
- 전문가들은 2% 상승을 기대했었다. 11월에는 그 전월에 비해 5.4%나 상승했었다.
- 11월 주문 하락은 운송 장비가 주도했고,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는 0.9% 하락했다.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연방 정부 섀다운으로 늦어졌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Treasuries Extend Dip as Data Signals Resilient Economy

미 견조한 경제지표로 국채 하락세

- 미국의 주택 및 내구재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 모든 장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며, 기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08%로 올라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2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투자자들은 1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20년 만기 국채 경매와 곧 발표되는 연준의 1월 통화정책 회의록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준의 금리 기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

[뉴욕시]

WSJ: Mamdani Warns of Nearly 10% Property-Tax Boost if No Tax on Wealthy

만다니 뉴욕시장, 부유층 세금 대신에 재산세 증액 제안

- 뉴욕시장 Zohran Mamdani는 기업과 부유층 높은 세금 부과 방안에 대해 뉴욕주지사 Kathy Hochul를 설득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그는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그는 화요일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여전히 최우선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부유층 과세 등 선택 방안이 모두 불가능해질 경우, 그의 예산안은 뉴욕시 재산세를 9.5%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37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뉴욕시의 예비비 12억 달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방법이 없으면 재산세율 인상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물류]

WSJ: White House Pitches New Fees, Incentives to Fund Maritime Revival

백악관, 해운 산업 발전 위해 수수료와 인센티브 제의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해운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운 추진 방안(Maritime Action Plan)을 공개했다.

- 이 계획에는 화물에 대한 신규 수수료, 해운 성장 개발 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s) 신설, 그리고 해양 안보 신탁 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를 유도하자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 안보 신탁 기금은 미국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되는 전용 기금이다.
-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연방의회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와 기금 조성 등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사

[무역 전쟁]

YahooFinance: Japan commits \$36B to US energy projects, critical minerals in first phase of deal

일본 “대미 투자 첫 단계로 3백60억불 에너지, 핵심 광물에 투자”

- 일본 정부는 작년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백억 달러의 대미 투자 협정 가운데 첫 단계로 3백60억 달러 규모의 가스, 오일, 핵심 광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이와 관련 어제 화요일 소셜 미디어에 “일본과의 광범위한 무역 거래는 이제 시작됐다”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규모는 너무 엄청나서 이른바 ‘관세’라는 특별한 용어 없이는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금속 관련 관세에 대해 양보할 예정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활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연방 의회가 대 캐나다 관세 종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중 6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Rise to Five-Month High in Broad In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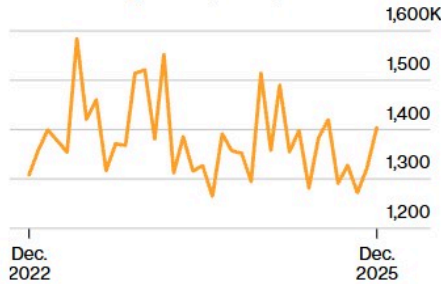
12월 미 신규 주택 착공, 5개월만에 최고치

- 12월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5개월만에 최고치로 증가했다. 주택 업자들이 낮은 차입 비용으로 주택 건설을 늘렸기 때문이다.
- 12월 주택 착공은 6.2% 증가해 연율로 1백40만 채 증가했다. 주로 단독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 건축 허가도 4.3% 증가해 연율로 1백45만 채가 건축 허가받아 지난 3월 이래 최고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부 지역의 건축 착공이 37.4%로 지난 1년간 비교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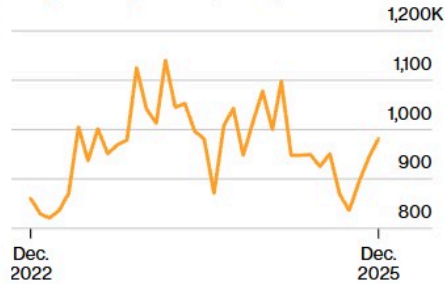
US Housing Starts Hit Five-Month High in December

Homebuilders boosted the pace of single-family and overall construction

Total housing starts (SAAR)



Single-family starts (SAAR)



Sources: Census Bureau,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기사

CNBC: Mortgage rates sink to the lowest level in a month, sparking more refinance demand

모기지율 한 달 만에 가장 낮아...재융자 수요 증가

- 30년 고정 주택담보 대출 모기지율이 6.21%에서 지난주 6.17%로 떨어졌다. 다운페이먼트 20%인 대출의 경우, 대출 수수료(originaton fee)를 포함해 대출 금액 대비 선납 수수료 비율은 0.56%로 그대로 유지된다.
- 모기지율 하락으로 재융자 수요가 증가했다.
- 모기지율이 낮아졌다고 주택 구매 인센티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융자 수요가 크게 늘어 지지난주와 비교해 2.8% 증가했다고 모기지 은행협회(MBA)는 말했다.
- 그리고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자 숫자는 지지난주에 비해 3% 하락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 증가했다.

기사

[에너지]

CNBC: Oil jumps 3% after Vance says Iran ignored key U.S. demand, military strikes on the table

오일 3% 상승 중... 부통령 밴스 “이란, 미 마지노선 무시”

- 부통령 JD 밴스는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에서 이란이 미국의 ‘마지노선’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밴스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일 경우 제한적 타격보다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기사

Bloomberg: Costs of Big Batteries Are Tumbling and Can Boost Clea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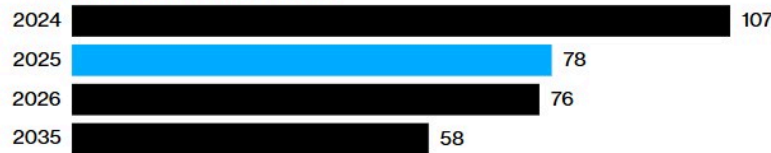
대형 배터리 비용 낮아져 청정 에너지 성장 지원

- 배터리 저장 비용이 지난해 25% 이상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 이를 통해 배터리를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태양광·풍력 발전의 반전량 한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BloombergNEF의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형 4시간 배터리 프로젝트의 기준 평준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27% 하락해 메가와트시 (MWh)당 78달러를 기록했으며, 2035년에는 58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배터리 저장 장치가 태양광 프로젝트 수익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eaper Battery Storage

Costs of battery storage declined 27% in 2025 and are forecast to fall further, BloombergNEF says

■ \$ per megawatt-hour (real 2025)



Source: BloombergNEF

Note: Data show benchmark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for a four-hour battery projec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As Walmart and Target head in different directions, all eyes are on their new CEOs

Walmart와 Target, 새로운 CEO들 경영 전략 다르다

- Walmart와 Target은 둘 다 새 CEO를 맞이했지만 CEO가 직면한 상황과 역할이 크게 다르다.
- 먼저 Walmart의 CEO John Furner는 주로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존 매출과 운영, 비용 구조를 지키고, 시장에서 큰 흔들림 없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것.
- 반면 Target의 CEO Michael Fiddelke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Target을 앞으로 혁신하고, 브랜드와 고객 경험을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장기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더 공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최근 Walmart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Target은 매출 약세를 보인다.

기사